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11일부터 8개 업종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대리운전 · 킷서비스 · 캐디 등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소득자료 월별 제출 대상에 대리운전, 킷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육식종사 등 8개 업종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용역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한 경우 용역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분만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홈택스 안내창을 통해 게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휘발유 1당 164원·경유 116원 내려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면서,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당정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픈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오는 12일부터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매월 소득자료 제출, 막상 해보니 ‘척척’... 656만명분 제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성실 제출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 8~9월 동안 제출된 소득자료는 656만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8~9월 동안 평균 82만 사업자가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월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영세해 제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 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478만건(356만명분)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함으로써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소득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